

노사발전재단, 남아시아 5개국에 ‘공공고용서비스’ 자문

ADB 주관 ‘남아시아 기술지원사업’
1호 스리랑카… 공무원 10명 초청
韓 고용서비스 운영 경험 등 공유

노사발전재단이 남아시아 5개국에 대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한 자문을 시작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관하는 ‘남아시아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호 지원 대상국은 스리랑카다. 방한 대표단이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자국의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재단은 이달 14~18일 기간 스리랑카 노동부 인력·고용국 공무원 10명을 초청해, 한국의 고용정책과 공공고용서비스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의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경험과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고용 연계, 청년고용 지원 등 정책과 현장사례를 공유하게 된다”며 “이를 토대로 스리랑카의 여건에 맞는 공공고용 정책의 우선과제 및 실행방안을 함께 모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뒷줄 네 번째)이 14일 서울 모처에서 스리랑카 노동부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강의-현장 방문-국가별 토론-액션플랜(실행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교육 첫날인 이날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 공공고용서비스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재단은 한국의 고용서비스 발전과정과 중앙-지역 간 전달체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또 참석자들과 스리랑카 노동시장과 공공고용서비스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 우선 과제를 논의했다.

15일에는 한국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경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의 연계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고용24, 노동시장정보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등 데이터·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의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16일에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원스톱 전달체계를 살펴본다. 이어 한국의 고용

하경제 운영 경험과 노동이주 및 귀환노동자 지원정책을 공유한다. 스리랑카가 직면한 국내 인력 활용과 해외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17일에는 청년의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청년고용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외대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무를 찾아, 대학 단계의 진로·취업지원과 지역기반 청년고용서비스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앞선 정책학습 및 현장방문 결과를 종합하여 스리랑카의

정책 우선과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한다. 한국의 정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스리랑카의 노동시장 여건과 정책수요를 고려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초청연수에서 도출된 정책과제와 실행계획은 본국에서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향후 스리랑카 현지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후 실질적인 정책개선 및 후속 정책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재단이 그리는 지원 목표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연수는 재단이 ADB와 같이하는 첫 번째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토대로 스리랑카가 자국의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ADB 및 남아시아 각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고용노동정책 경험이 각국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 아쿠아시설 ‘인기’

부산항만공사 “年 7만명 시민 방문”
6개 레인 수영장·24m 다이빙풀 보유
재개장 후 운영 시간 대폭 연장

부산항만공사는 14일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로 재개장한 북항 재개발지역 내 아쿠아시설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새 단장은 시민들이 재개발 지역에 보다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지난달 하순 3년 차 정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달 초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북항마리나 아쿠아시설은 6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영남권 최고 수심인 24m 다이빙풀을 보유하고 있다. 연간 7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지역대표 해양테러리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 내 다이빙풀.

/부산항만공사

설이다.

이번 재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운영시간 확대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대폭 연장했다. 이에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려는 직장인과 일반 시민의 방문이 급증했다. 특히 재개장과 함께 모

집한 정규 수영 강습은 온라인접수 개시 직후 전석(8개 시간대 360명) 마감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공사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다이빙풀 운영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하루 2개 시간대(오전, 오후)로 운영 중인 다이빙풀을 다음 달부터 하루 3개 시간대로 늘려, 이용객의 시간대 선택 폭을 넓히고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북항마리나 스포츠센터는 북항재개발 지역이 시민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핵심 찬수공간”이라며 “재개장에 보여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난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세에도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7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 당 1859.1원으로 전주보다 1.1원 내렸다.

/뉴시스

중동 전쟁에도 지난달 원유 도입 9.8% ↑

대한석유협회 “정부의 적극적인 원유수급 지원·비축유 스와프 효과”

중동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악재 속에서도 정부의 수급 지원과 정유업계의 원유 확보 노력에 힘입어 국내 석유제품 수급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초기 급감했던 원유 도입량은 빠르게 회복돼 지난 7월에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14일 대한석유협회(KPA)에 따르면, 전쟁 초기 원유 도입 차질로 지난 4월 국내 원유 도입량은 2010년 이후 최저치(약

6450만 배럴)까지 떨어졌으나,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원유 확보 노력으로 원유 도입량이 빠르게 회복됐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를 보면, 7월 원유 도입량은 9318만 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다.

석유협회는 “계속되는 중동 전쟁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원유수급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시행 효과로 원유 공급 차질 문제가 사전적으로 해소됐다”며 “국내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휘발유·등유·경유 등 필수 석유제품의 국내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농식품부 추석 명절 앞두고 축산물 공급 확대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량을 평상시에 비해 각각 30%, 40%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생산자단체 자조금을 활용해 전국 대형마트 할인행사 지원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둔 14일 충북 음성시의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수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소비자들께서 뜻깊고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도축 작업량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소·돼지고기 등의 수급 동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사회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막작 선정

‘서울인디애니페스트’와 홍보 협약

한국마사회방송센터가 ‘제22회 서울인디애니페스트 2026’과 상호 홍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유일의 독립애니메이션 영화제로 이달 17~22일 기간 CGV 연남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사회의 애니메이션 ‘홈스트레치’가 영화제 공식 개막작 4편 중 하나로 선정됐다. 서평원 감독과 함께 제작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개막식 및 개막 특별색션 ‘두루두루: 한국 애니메이션 쇼케이스’에서 관객과 만나게 된다. 홈스트레치는 제주목장에서 자란 소녀 ‘여울’이 상경해 도시의 속도에 적응해 가며, 단짝 말 ‘호리’와의 추억을 되새기는 1분 분량의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올해로 22화째를 맞은 서울인디애니페스트의 슬로건은 ‘두루두루’다. 숫자 2를 둘둘로 읽어 여기저기 빠짐없이 골고루 감싸 안는다는 뜻을 담았다. 개막 색션은

창작자의 외주 작업이 단순한 의뢰 작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표현과 기술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마사회의 홈스트레치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의 ‘디어 마이 히어로’, AI 기술을 접목한 ‘그레도, 라이언’, 이승윤 뮤직비디오 ‘무얼 흠치지’와 함께 상영된다. 광고·게임·음악·AI를 넘나드는 독립애니메이션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마사회는 또 자체 보유한 방송 인프라로 영화제 알리기에도 나선다. 서울·부산·경남·제주 등 전국 3개 경마공원의 초대형 전광판과 전국 지사, 모바일 ‘더비온’ 앱을 통해 영화제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송출하며 관객들에게 영화제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광고 영상이 단순 홍보를 넘어, 창작자의 개성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영화제 공식 개막작으로 관객과 만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산산단 화학사고, 해양 확산 막는다

기후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6개 기관·46개 사업장 ‘맞손’

석유화학 전용부두가 밀집해 화학사고 발생 시 해양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민관이 함께 신속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5일 서산시 대산읍 소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대산산단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제지원체

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의 민관 합동 공동방제지원체계 구축은 2024년 울산, 2025년 여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협약에는 화학물질안전원을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서산시, 평택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서산소방서 등 6개 행정기관과 대산공단협의회,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46개 사업장) 등 2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

/세종=한용수 기자